

## 동해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제안

최찬식  
(전 청구대 교수)

東海의 國際名稱을 위하여 「靑海」를 提案함

우리가 東海에 관한 古名을 찾아보는 세미나를 열고 있는 동안, 어떤 나라에서는 如前히 地圖에 “日本海”란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意圖的이라기보다는 惰性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라도 地圖를 一瞥하면 바다는 세나라에 의하여 包圍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으니, “日本海”란 이름에 客觀性이 없다는 것을 看過할수 없기 때문이다.

“東海”는 한국과 러시아로 봐서는 地理的으로, 歷史的으로 適切한 名稱이며 地球의 東洋에 位置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妥當性이 있다. 그러나 日本의 觀點으로 볼 때는 西쪽에 자리하고 있으니, 日本 사람들이 抗議를 해도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國際的 公用名稱으로서 세 나라의 感情을 傷치 않는 이름을 찾아야 하겠는데, 나는 “靑海”를 提案하고자 한다. “靑海”, “滄海”는 이미 古書에도 나올 뿐 아니라, 西쪽의 黃海와 對稱이 되고, 南쪽의 玄海(검은 바다)와도 色깔 이름으로 高리를 잇는 妙味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 나라의 情緒에 完全히 客觀的이라는데 得點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것은 日本 麗澤大學의 尹東俊次郎 教授의 發想에 비롯된 것이란 것을 밝혀둔다. 1994年 10月 日本에 있었던 日本比較文明學會의 學會에 즈음하여 내가 問題提起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의 코멘트 脚註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 名稱을 舉論한 것이었다. (見 「比較文明 11」 1995)